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기준 도입... 병·의원 다시 제한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33개로 확대
부정 유통 시 과태료·과징금 강화
미등록 수취 댄 최대 2000만원 부과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병·의원이나 한의원, 법무·회계사무소 등도 제한 업종에 다시 추가돼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대로 약국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13~5월8일)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 전경. /김승호 기자

또는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전환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한 후 첫

갱신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가맹 등록이 다시 제한된다.

중기부는 이참에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을 기존 29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약국은 전국 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가맹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세부 기준도 정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을 신설해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추가했다. 신청지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내수 살리기 나선 '동행축제' 개막

전주서 개막식 열고 한 달간 진행
200여 유통채널서 판촉 행사 전개
온라인몰서 1만8000개 제품 할인

내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한 '2026년 동행축제'가 본격 막을 올렸다. 12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축제 개막식이 열렸다.

동행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한 달간 2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다채로운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전국 3만 3000개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산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쿠팡 등 93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K-뷰티·패션·식품 등 1만8000여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할인이 펼쳐진다.

특히, 3대1의 경쟁을 통해 선정된 동행축제 대표 300개 제품에 대해선 네이버에서 '동행 300 기획전'이 30일간 열리며 최대 50%의 자체 할인전에 더해 20% 할인쿠폰을 등을 지원해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도 TV방송 상품에 대해 최대 5만원의 적립금 지급과 기프티콘 지급 등 5월 가정의달과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역과 연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K-컬처' 열풍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과



지난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4월 동행축제 개막식'에서 (왼쪽 다섯번째부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소기업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이충환 전국시장연합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내국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로도 이어지도록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대형 유통사,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준비한 우수 소상공인 판매전과 이벤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진다.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부평 르네상스상권에선 '부평블랙데이' 행사가 열린다.

5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제버거로 유명

한 대구에서는 에스24 반월당점 일원에서 '대구 수제버거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일부터 3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점에서는 뷰티, 리빙, 공예품, 먹거리 등 50개 사 우수 소상공인의 플라마켓이 열린다. 한살림생협 전국 230개 지점에서는 동행축제 기간 내 누구나 10% 할인된 회원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산업안전 구축사업 공급기업 5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B금융그룹이 산업재해 예방 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KB금융그룹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50개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화재·끼임·충돌·추락 등 산업재해 예방 기술을 보유한 기업 뿐만 아니라 안전용품 제조 기업, 교육·컨설팅 기업도 두루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총 3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과 KB금융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기업을 50% 이상 선정하는 등 지역 중심 선발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LG엔솔, 북미 ESS 확대에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

1분기 영업손실 207억원 기록 미시간 홀랜드 공장 체질 전환 유럽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선제적으로 확보한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기반을 앞세워 2분기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로 1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ESS 시장에서 미리 공급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실적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에 잠정 기준 20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프랜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985억원, 3분기는 5213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개선 기대의 배경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ESS 수요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을 LFP 기반 ESS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등 북미 지역에 총 5개의 ESS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 현지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일부 거점은 이미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상태.

향후 ESS 매출을 세 배 이상 키우려는 목표를 세웠고 글로벌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올해 말까지 6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명 대표는 지난달 말 주주총회에서 ESS와 신사업 비중을 현재 약 20% 수준에서 향후 40%대 중반까지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전기차 부문 역시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 속도는 아직 완만하지만, 지난 3월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산업기속회법(IAA) 이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산 배터리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유럽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부터 고전압 미드니켈과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을 본격화하며 관련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관희 기자 wkh@

한유원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2일 한유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비 확산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은 올해 총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e커머스 광고(타입업, 전용기획전 등) ▲버티컬커머스 특화 마케팅 및 판매 ▲플랫폼별 맞춤형 관촬 및 홍보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는다.

/김승호 기자